

“저돌적인 ‘불나방’ 구세라, 실제의 나와 닮았어”

“욕심냈던 로코, 고민 없이 출연” 박성훈 “나나의 매력 잘 드러나” 황 PD “정치편향? 상식적 시선”

여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박성훈은 “그동안 장르나 캐릭터 탓에 미처 부각되지 않은 나나의 진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드라마”라고 덧붙였다.

●정치 편향 지적... ‘시청자·시민의 일반적 시선으로 접근’

‘출사표’는 방송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미래통합당이 6월25일 논평을 통해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알렸기 때문이다. 극 중 가상의 지역인 마원구의회를 구성하는 ‘다같이진보당’, ‘애국보수당’ 소속 정치인의 인물 설정이 ‘진보는 선·보수는 악’ 구도로 나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KBS는 “정치 편향성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등장인물 중 정치인 소개에서 예민한 내용은 수정했다.

이날 제작발표회에서도 황승기 PD에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이에 황 PD는 “정당 명을 진보, 보수로 선명하게 정해 오해가 생겼다”며 “젊은 시청자나 시민 입장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보이고자 했을 뿐 정치적으로 편향돼 접근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출사표’는 총 16부작 가운데 현재 12부까지 대본이 나왔다. 촬영도 대부분 이뤄졌지만 정파성 문제로 대본을 수정하거나 다시 촬영한 부분은 없다. 황승기 PD는 “상식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저돌적인 성격,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만큼 적극적인 성향, 그래서 주변에서 ‘불나방’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인물.”

연기자 나나가 KBS 2TV 수목드라마 ‘출사표’(극본 문현경)에서 맡은 주인공 구세라에 대해 내놓은 명쾌한 설명이다. “실제 성격도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고, 목표를 정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 해결한다”는 나나가 지상파 미니시리즈 첫 주연을 맡고 여류 안방극장에 다부진 출사표를 던졌다.

●“좋은 에너지 주는 대본, 고민 없이 참여”

KBS가 평일 밤 미니시리즈 방송시간을 1일부터 30분 앞당김에 따라 나나의 ‘출사표’도 1일 9시30분 시청자를 찾았다. 첫 방송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나나는 “즐거면서 연기하고 싶어 로맨티코미디를 욕심내던 차에 만난 드라마”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출사표’는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는 주인공이 불의를 해결하려고 구의원에 출마해 겪는 이야기다. 구청에서 좌천당한 엘리트 사무관과 손잡은 나나는 ‘불량 정치인’을 통과하게 응징하고, 좌충우돌 성장하면서 로맨스도 꽃피운다. 나나를 비롯해 상대역인 박성훈, 연출자인 황승기 PD는 지난해 KBS 2TV 범죄 추리극 ‘저스티스’에서 호흡을 맞춘 사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장르를 바꿔 다시 뭉쳤다.

나나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이야기

▶연기자 나나가 1일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출사표’의 온라인 제작발표회를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나나는 ‘출사표’를 통해 지상파 미니시리즈 주연 자리에 첫 도전한다. 사진제공 | KBS



연예뉴스 HOT 5

‘기생충’ 배우·스태프, 아카데미 회원 초청

오스카 4관왕의 기록을 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스태프가 미국 아카데미 회원으로 초청받았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AMPAS)는 1일(한국시간) 2020년 신입회원 초청자 819명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기생충’의 주역인 박소담, 최우식, 이정은, 장혜진, 조여정 등이 포함됐다. 확산에 프로듀서와 양진모 편집감독, 이하준 미술감독, 한진원 작가 등도 이름을 올렸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는 이미 2015년 회원이 됐다.

엑소 백현, 솔로 앨범으로 밀리언셀러에



백현

그룹 엑소의 멤버 백현이 그룹에 이어 솔로 앨범으로도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1일 소속사 에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백현이 5월25일 발표한 두 번째 미니음반 ‘달라이트’는 총 101만8746장(6월30일 기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솔로 가수의 앨범이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한 것은 2001년 김건모가 발표한 7집 이후 19년 만이다. 백현은 앞서 그룹으로서도 2013년 엑소 정규 1집으로 가요계 12년 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노민우 ‘아야세 하루카 열애설’ 부인

그룹 트랙스 출신 연기자 노민우가 일본 연기자 아야세 하루카와 열애 중이라는 의혹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일 노민우 소속사 엠제이드림시스 관계자는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일본 언론매체인 뉴스포스트세븐은 이날 이들이 2018년 8월 교제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2004년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노민우는 2년 뒤 팀을 탈퇴해 배우로 전향했다. 아야세 하루카는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드라마 ‘호타루의 빛’ 등에 출연해 국내에도 이름을 알렸다.

방송인 김민아 정부 유튜브서 ‘막말 논란’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가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민아는 5월 정부 공식 유튜브 계정 ‘아웃백2’ 3번째 영상에서 중학생 시청자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어떻게 푸나요”라고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이에 누리꾼은 ‘보기 불편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에 정부 공식 유튜브는 1일 해당 영상을 내린 후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김현철·김신영 ‘브론즈마우스’ 받아



김현철

김신영

가수 김현철과 개그우먼 김신영이 10년 이상 M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DJ에 주어지는 브론즈마우스를 받았다. 김현철은 1994년부터 3년간 ‘디스크쇼’를, 2013년부터 5년간 ‘오후의 발견’ 등을 진행했다. 4월부터 ‘골든디스크’ DJ 자리를 맡고 있다. 김신영은 2007년 ‘심심타파’를 거쳐 2008년부터 ‘정오의 희망곡’을 진행하고 있다. 1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수여식에 참석한 김현철과 김신영은 “MBC 라디오에 영광을 돌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순재 사과로 갑질논란 일단락됐지만...

매니저 직업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제기 매니저 업무 범위·처우 개선 목소리도



연기자 이순재가 최근 휩싸인 ‘매니저 갑질’ 논란에 대해 “모든 법률책임과 비난을 받겠다”며 사과했다. 뉴스사

배우 이순재(85)가 최근 불거진 현장매니저 부당 업무 지시와 관련해 법률책임과 도의적인 비난을 받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로서 매니저 직군이 가진 특수성과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엔터테인먼트는 1일 입장문을 내고 “1인 기획사로 급하게 사무실을 이전하느라 (매니저 채용) 계약서 작성을 누락했다”고 인정하고 “프리랜서라고 생각해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급여는 업계 평균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정과 법적 책임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순재도 소속사를 통해 “남은 인생, 살아온 인생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당초 소속사는 기자회견과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었지만 이순재가 “더는 문제를 키우지 말고 책임지겠다”고 뜻을 전하면서 노동청 조사를 기다리기로 했다.

다만 김씨가 2개월간 현장매니저로 일한 과정을 ‘머슴살이’ ‘갑질’ 등으로 표현하거나 ‘해고 통보’라고 한 주장에 대해 소속사는 “과장되고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4대 보험 가입 등을 채용주체인 소속사가 아닌 배우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그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는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해 상호 신

뢰가 깨졌다는 설명이다. 유명 원로배우와 현장매니저 사이의 갈등을 두고 연예계에서는 배우 한 사람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 매니저를 두고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 연예인의 인식 전환은 물론 매니저 처우개선, 연예계에 처음 입문하는 현장매니저에 대한 직업 이해 및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저협회는 7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번 사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이 아닌, 연예계 오랜 고민인 매니저 업무 범위 등 처우에 의견을 나누는 자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저협회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일하는 상호보완적인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통해 매니저 등 종사자들의 처우, 직업 입문 교육 등에 보다 현실적인 조항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랜덤박스’ 발표한 지코, 신드롬 제2탄?

타이틀곡 서머 헤이트, 차트 상위권 전세계 팬들 ‘댄스 챌린지’ 따라하기



가수 지코가 1일 발표한 새 미니음반 ‘랜덤박스’로 ‘음원 강자’ 자리를 다시 굳히고 있다. 사진제공 | KOZ엔터테인먼트

가수 지코가 흥행 돌풍을 이어간다. 올해 상반기 ‘아무노래’ 신드롬을 일으킨 지코가 1일 오후 발표한 새 미니음반 ‘랜덤박스’(RANDOM BOX)를 통해 또 한 번 ‘히트메이커’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새 앨범 타이틀곡 ‘서머 헤이트’(Summer Hate)는 발표와 동시에 각종 음원사이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온라인상에서는 일찌감치 ‘댄스 챌린지(Challenge)’ 열풍까지 조성돼 시선을 끈다.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게 “작정하고” 만든 신곡은 지코만의 재치 넘치고 트렌디한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이다. 최근 ‘강 열풍’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가수 비가 피쳐링으로 참여했다.

특히 ‘서머 헤이트’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기 좋고, 흥겨운 멜로디로 저절로 어깨춤을 들썩이게 하는 ‘아무노래’의 히트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또 다른 ‘신드롬’을 일으킬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아무노래’는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52회나 1위를 차지하는 등 장기간 차트 집권하며 온오프라인에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또 그는 “비나 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가사에 맞춰 이날 오전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에서 기상캐스터로 깜짝 출연해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댄스 챌린지’에 대한 반응도 심상치 않다. 자신의 SNS를 통해 #서머헤이트챌린지를 잇달아 공개하자 전 세계 팬들이 이를 따라하고 있다. 가수 비와 도전한 댄스

챌린지는 공개한지 11시간 만에 76만 뷰를 기록 중이다.

지코는 소속사를 통해 “무게감을 덜고 청량감을 더해 만들었다. 가볍고 편하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일명 ‘부채질 춤’의 댄스 챌린지는 더위에 저항하는 표정으로 해야 더 하는 재미있다. 설렘설렘 따라 취도 아주 재미있으니 저마다의 개성에 맞춰 즐겨달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